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4.08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Q&A: 유럽의회 레파시 의원, ‘자율적 ERC’ 촉구(4.1)

- 레파시 의원은 ERC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 배분에 있어 우수성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
- 대학·연구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접근으로 효율성과 동료평가 기반 검증을 보장하고, 파트너십과 연구 인프라 지원은 제한·조정해 재원 활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

※ 한편 집행위 성장총국 부총장은 유럽의회가 집행위의 호라이즌유럽과 ECF 간 연계 계획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, 곧 도입될 ‘경쟁력 조정 도구’를 통해 기금 간 협력 방식을 구체화하고 상향식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을 언급

○ EU의 핵융합 진전과 주요 성과 및 향후 방향(4.3)

- EU는 핵융합 상용화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혁신 가속화에 전념하고 있으며, ITER 등 국제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역할 수행
- ‘25년 성과로 ITER 프로젝트 진전, 스페인 DONES 시설 지원, 연구·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등이 강조되었으며, 향후 EU 최초 핵융합 전략 마련 및 ITER 참여 강화, 시험 인프라 구축 등 상용화 강화를 위한 여러 실행 방안이 제시될 계획

○ EIC Tech Report 2026, 25개 딥테크 신호 제시(3.30)

- 유럽혁신위원회(EIC)는 2021~202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, 기술성숙도가 낮거나 중간 수준에 있는 유망 딥테크 25개를 도출 (크게 디지털·우주, 청정·자원효율, 바이오·헬스 기술로 구분)
- 보고서를 통해 유망 기술의 초기 ‘신호’를 식별하여 향후 추가 검증, 기술 확장, 기술 간 융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색

- (기타) ▲EU의 과학연구 목적 동물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해(4.7) ▲유럽 전역 뉴스·공익 정보에 대한 다국어 접근 지원(3.31) ▲3억 9,900만 유로 규모 MSCA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 공고 개시(4.7)